

“믿음의 능력”

행 9:32-43

처음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베드로의 활약을 이야기하다가 빌립과 스테반이 등장하다가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말하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모든 사건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문을 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으로 타 민족과는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온통 다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테반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 인한 핍박으로 주의 제자들이 온 사방다른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가 다니며 기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으로 누어 8 년 된 병자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과 특히 룻다에서 15km 떨어진 옴바라는 곳에 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 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확신이 와서 기도했더니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를 통해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죽어도 한이 없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이 임하면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발견

다시 말하면 identity 즉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즉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와 아들 비유에서도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음은 저축됩니다.

(행 9:36) 옴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행 9:37)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람어로 다비다이고 그리스어로는 도르가입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선행과 구제로 칭송을 받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도르가라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였기에 옴바에서는 그의 선행과 구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평소에 믿음 좋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평생에 믿음의 크레딧을 쌓았고 기도와 선행과 구제의 크레딧을 하늘나라에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느 날 그만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지라도 나이들고 병들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히 찾아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가 화려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백약이 무효라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은 도르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어 놓은 후 베드로를 불러 왔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은 울면서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그들을 위해 지어준 속옷과 겹옷을 모두 내어 보이며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은 내어 보낸 후 시체 옆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르가가 믿음의 저축, 선행과 구제의 저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저축된 기록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축통장마다 믿음, 구제, 선행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도르가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령하니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부지런히 저축하는 것은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은행에 가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저축을 해놓아야 합니다. 신앙에 저축과 같이 더 확실한 투자가 없습니다.

1. 성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믿음이 저축됩니다.

(사 58:13)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사 58:14)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고 낚시나 골프를 가면서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일 이 말이 옳으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됩니다” 생신이나 명절에 가 뵈지도 못하고 선물이나 생활비 한푼 드리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하니 효도가 아니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같이 행함이 없는 마음이 효도는 무용함과 같이 마음의 성수주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나라에 잘

저축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 할 때 인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물질은 천국에 저축해야 합니다.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말 3:12)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십일조를 하늘 창고에 저축 했을 때 주께서 내려주실 복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십일조를 하늘 창고에 저축해 놓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3.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았다고 고백 할 수 있으려면 첫째가 죽음 이후의 돌아갈 곳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승리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둘째는 첫번째가 충족되었다고 해도 심판대에 섰을 때 신앙이 열매가 없으면 책망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산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마 25: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마 25:33)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있듯이 한 곳에서 풀을 뜯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40 절과 45 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먹지 못하여 굶주린 사람들,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거할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게 전부인 줄 알 살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나누는 삶인 구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제라 바로 믿음이 실상을 맺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약 2:14-17)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울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께 기억한바 되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위기 때 건짐을 받으려면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할 뿐이라 반드시 구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 장 24 절에 보면 25 절까지에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남의 것을 자꾸 빼앗고 남을 괴롭히면 자기가 잘 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남을 잘살고 윤택하고 성공시켜주면 자기가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남을 성공시켜라. 남을 축복 받게 하고 남을 윤택케하고 남을 성공시키면 반드시 그것이 나의 축복으로 나의 윤택으로 돌아오겠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3. 기도의 저축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영의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축적해 가는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영적 힘을 발휘하여 큰일을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쌓아 가면 내일 부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영적인 장애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심는 기도도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지만 그 기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의 씨앗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심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서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3. 다비다는 특별히 구제에 힘쓰며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삶 가운데 어떤 구제의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꿈꾸는 구제의 모습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기도는 저축되는데, 당신은 하루 중에 언제, 얼마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